

2023년 10-2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10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의 국내경제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년 10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美 3분기 성장률 4.9%(전기비), 中 4.9%(전년동기비) 성장

- 미국은 9월 경제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방향성이 불투명해 보이나,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4.9%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견조한 성장 여건을 반영
- 일본은 8월 내수 지표들의 부진과 무역적자 확대 속에 日 정부가 한시적 소득세 감세 시행을 검토하고, 유로존은 8월 실물지표들이 역대 부문간 혼조세를 시사하는 가운데 올해와 2024년 역대 성장률이 제로 수준에 그칠 우려
- 중국은 9월 내·외수 지표들이 완만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3분기 내수 지표들의 현저한 둔화와 수출 감소폭 확대 영향에도 전년동기비 4.9% 성장률 기록
- 달러화는 10월 중순 이후, 美 국채금리의 상승 부담에 따른 경제감에도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으로 인한 美 금리 상승세 속에 주요국 통화 대비 강보합
- 유가는 10월 들어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수출 제재 완화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양상과 미국의 원유재고 변화 등에 따라 등락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8월 전산업생산 +2.2%

- 지난 3분기 국내 실질GDP가 설비투자의 감소 전환에도 소비 증가와 수출 증가에 따른 순수출 규모 확대 등에 힘입어 전기비 0.6% 성장률을 기록
 -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전월비 5.5%)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의 증가세(0.3%)가 이어짐에 따라 3개월 만에 증가(2.2%)

□ 금융 : 9월 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둔화 전환, 10월 중순(10월 13일 ~ 26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상승

- 9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현저히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10월 중순 이후 단기 급등 경계감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美 국채금리의 반등세와 함께 동반 상승세

○ 원/달러 환율은 美 국채금리 하락과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반락세를 보인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美 국채금리 상승 재개 등으로 재차 상승

□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0.6%, 서비스업생산 +1.7%**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와 반도체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기계장비, 섬유제품, 1차금속,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0.6% 감소

- 제조업ICT와 중공업 생산은 증가하고, 경공업 생산은 감소폭이 축소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의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와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1.7% 증가

□ **고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지난 9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소폭 감소에 그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0.9% → 1.1%)

□ **수출입 : 9월 수출 -4.4%, 수입 -16.5%,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

○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4% 감소한 547억 달러, 수입도 16.5% 감소한 510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반도체·석유제품·가전 등에서 올해 월간 기준 최대 실적치를 기록한 데다, 자동차·선박·일반기계·가전·디스플레이·철강 등 6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미국·EU·중남미 등지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비 감소율이 2022년 10월 이후 최저치(-8.3% → -4.4%)

1. 해외경제

□ 미국 : 9월 실물지표 증가세, 3분기 실질GDP 성장률 4.9%로 호조

○ 9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체감지표들의 혼조세와 선행지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불투명. 지난 3분기 투자 감소에도 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4.9% 성장률로 예상치(4.3%) 상회

- 산업생산은 광업(전월비 0.4%)과 유틸리티(-0.3%) 부진에도 제조업(0.4%)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증가(0.3%) 전환되고, 소매판매는 주유소(0.9%)와 자동차·부품(1.0%) 등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증가세(0.7%)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47.1)의 상승에도 미래 기대지수(73.7)가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 2개월 연속 하락세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 확대(8월 22.7만 개 → 9월 33.7만 개)된 반면에,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4월부터 18개월 연속 하락
- 美 경제가 지난 3분기 설비투자 감소(전기비 -3.8%)에도 소비 확대(4.0%)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전년동기비 2.9%, 2022년 1분기 이후 최고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8	1.9	2.2 (1.7)	2.1 (2.4)	4.9 (2.9)				
산업생산 (IT생산)	4.4 (9.7)	3.4 (2.4)	-0.1 (-0.9)	0.2 (6.7)	0.6 (3.7)	-0.5 (1.5)	1.0 (1.6)	0.0 (0.8)	0.3 (0.6)
내구재수주	18.4	8.3	-0.1	5.4	-0.9	4.3	-5.6	-0.1	4.7
소매판매	18.2	9.7	1.1	0.1	1.7	0.2	0.6	0.8	0.7
소비자물가	4.7	8.0	0.9	0.7	0.9	0.2	0.2	0.6	0.4
실업률(%)	5.4	3.6	3.5	3.6	3.7	3.6	3.5	3.8	3.8
무역수지(10억US\$)	-841.6	-951.2	-201.8	-203.5	-	-63.7	-64.7	-58.3	-
ISM 제조업지수 ¹⁾	60.6	53.5	47.1	46.7	47.7	46.0	46.4	47.6	49.0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04.5	104.5	105.4	108.6	110.1	114.0	108.7	103.0
경기선행지수 ³⁾	113.8	114.8	109.4	106.7	105.2	106.1	105.8	105.3	104.6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8월 실물지표 부진세, 日 정부 한시적 소득세 감세 시행 검토

- 8월 생산 감소와 소비 약세 등 내수 지표들의 부진 속에 수입의 3개월 연속 대폭 감소(-17.7%)에도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0.3%)하면서 무역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 日 정부는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 내수 약세 등에 대응하여 한시적인 소득세 감세 시행을 적극 검토하는 등 새로운 경제대책 마련에 주력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1.0	0.1	0.8	1.2				
광공업생산	5.8	0.0	-1.7	-1.8	1.4	-2.2	2.4	-1.8	-0.7
민간기계수주	6.0	5.5	-4.7	2.6	-3.2	-7.6	2.7	-1.1	-0.5
소매판매	2.0	2.6	1.2	2.5	0.5	1.4	-0.6	2.2	0.2
소비자물가	-0.2	2.5	1.1	0.5	0.7	0.0	0.2	0.4	0.2
실업률(%)	2.8	2.6	2.5	2.6	2.6	2.6	2.5	2.7	2.7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5,662	-5,185	-1,779	-1,382	39	-64	-938
경기선행지수 ¹⁾	114.2	112.0	109.7	108.3	108.6	109.0	108.8	108.2	109.5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9월 내·외수 완만한 흐름, 3분기 성장률 4.9%로 예상치 상회

- 9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수출 감소세도 완만히 둔화되면서 내·외수 여건의 완만한 흐름을 시사. 3분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수출 감소폭이 뚜렷이 확대된 영향에도 시장의 예상치(4.4%)를 웃도는 4.9% 성장률을 기록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4.5	6.3	4.9				
산업생산	9.3	3.4	3.2	4.5	4.2	4.4	3.7	4.5	4.5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5.1	3.8	3.1	3.8	3.4	3.2	3.1
소매판매	12.4	-0.8	7.1	11.4	4.2	3.1	2.5	4.6	5.5
소비자물가	0.9	2.0	1.3	0.1	-0.1	0.0	-0.3	0.1	0.0
수출(달러화기준)	29.6	6.1	-1.9	-4.8	-9.8	-12.4	-14.3	-8.8	-6.2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8월 실물지표 혼조세, 역내 성장률 제로 수준으로 부진 우려

- 8월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부문간 혼조세가 나타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5%대로 비교적 높은 수준. 올해와 2024년 역내 성장률이 제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3	3.5	-0.1	0.1	0.1				
산업생산	8.8	2.2	-1.0	-0.3	-1.1	0.0	0.1	-1.3	0.6
소매판매	5.1	0.9	-1.2	0.0	0.0	0.4	0.0	-0.1	-1.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10.0	8.0	6.2	6.1	5.5	5.3	5.2
무역수지(10억유로)	97.9	-343.8	-64.6	-6.1	1.2	0.9	7.8	3.5	11.9
경제체감지수 ¹⁾	110.7	101.9	95.3	99.2	96.9	96.4	95.3	94.6	93.6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보합 & 유가 변동성 확대

- 달러화는 10월 들어 연준의 추가 긴축 제한 가능성과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일시 하락하고, 美 국채금리의 상승 부담에 따른 경제감에도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으로 인한 美 금리 상승세 속에 주요국 통화 대비 강보합
- 유가는 10월 들어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수출 제재 완화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양상과 미국의 원유재고 변화 등에 따라 등락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26일
엔/달러	130.09	136.17	132.86	136.30	139.34	144.31	142.29	145.54	149.37	150.40
달러/유로	1.0863	1.0576	1.0839	1.1019	1.0689	1.0909	1.0997	1.0843	1.0573	1.0563
미 국채(10년만기)	3.51	3.92	3.47	3.42	3.64	3.84	3.96	4.11	4.57	4.84
WTI유	78.9	77.1	75.7	76.8	68.1	70.6	81.8	83.6	90.8	83.2
두바이유	79.3	81.3	76.8	78.9	72.1	76.1	85.6	87.2	92.9	89.8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8월 전산업생산 +2.2%

○ 지난 3분기 국내 실질GDP가 설비투자의 감소 전환에도 소비 증가와 수출 증가에 따른 순수출 규모 확대 등에 힘입어 전기비 0.6% 성장률을 기록

- 민간소비가 2분기 만에 소폭 증가(전기비 0.3%)한 반면, 설비투자가 감소(-2.7%)하고, 수출(3.5%)과 수입(2.6%)이 동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순수출 규모가 전분기보다 확대(30조원 → 33조원)되면서 플러스 성장에 일조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GDP성장률	4.3	2.6*	0.9* (0.3*)	0.9* (0.6*)	1.4**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4.6* (0.6*)	1.6* (-0.1*)	0.3** (0.3**)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5.9* (-5.0*)	4.7* (0.5*)	-4.7** (-2.7**)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9* (1.3*)	1.7* (-0.8**)	4.0** (2.2**)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2 (0.7)	-0.5 (0.3)	-	-1.4 (0.7)	0.6 (0.0)	-1.5* (-0.8*)	1.5* (2.2*)
광공업생산지수	8.2	1.4	-9.7 (-0.9)	-7.6 (3.1)	-	-7.6 (3.1)	-6.0 (-1.6)	-8.1* (-2.0*)	-0.5* (5.5*)
제조업생산지수	8.4	1.4	-10.0 (-0.9)	-7.8 (3.3)	-	-7.8 (3.0)	-6.2 (-1.6)	-8.3* (-2.1*)	-0.6* (5.6*)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6.4 (1.2)	2.3 (-0.3)	-	1.2 (-0.9)	3.0 (0.6)	1.7* (0.3*)	1.7* (0.3*)
소매판매액지수	5.8	-0.3	-0.4 (1.1)	-0.2 (-0.3)	-	-0.6 (0.6)	1.5 (0.9)	-1.7* (-3.3*)	-4.8* (-0.3*)
설비투자지수	9.6	3.3	-0.5 (-8.8)	-1.2 (1.3)	-	-4.9 (3.1)	-2.5 (-1.1)	-11.2* (-8.9*)	-14.9* (3.6*)
건설기성액	-6.7	2.7	11.5 (4.6)	8.9 (-0.8)	-	5.7 (0.7)	8.8 (-2.2)	10.5* (0.8*)	12.3* (4.4*)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7	108.2	108.8	110.2*	-	110.3	110.3*	110.0*	110.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4	100.9	99.7	100.2*	-	100.3	100.1*	99.6*	99.4*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4	109.9*	-	109.8	110.5*	111.1*	111.4*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4	100.3	99.0	98.7*	-	98.6	98.9*	99.3*	99.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전월비 5.5%)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의 증가세(0.3%)가 이어짐에 따라 3개월 만에 증가 전환(2.2%)
 - 광공업생산이 반도체(13.4%) 등에서 증가하면서 5.5%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3개월 연속 증가(0.3%)
 - 소매판매는 내구재(전월비 -1.1%)와 준내구재(-0.6%) 판매의 감소폭 축소, 비내구재(0.2%) 판매 증가로 전월비 감소폭(-0.3%)이 축소되고, 설비투자도 운송장비(13.1%)에서 큰 폭 증가한 데 힘입어 상당폭 증가(3.6%) 전환
 - 동행종합지수는 수입액과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의 하락에도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승(전월비 0.1%)하고, 선행종합지수 역시 건설수주액 등의 하락에도 장단기금리차, 재고순환지표, 코스피지수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0.3%)

□ 물가 : 9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4%, 전년동월비 +1.3%

- 9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1.6%)와 교통(1.3%), 주택·수도·전기·연료(1.3%) 등에서 상승한 반면, 음식·숙박(-0.2%) 등에서 하락함에 따라 전월비 0.6% 상승(전년동월비 3.7%,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
- 9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이 소폭 상승(전월비 7.3% → 0.2%)에 그치고, 공산품 가격이 상승세가 둔화(1.0% → 0.8%)된 데다, 서비스 가격도 1년 만에 하락(-0.1%)하면서 전월비 0.4% 상승(전년동월비 1.3%)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2.5	5.1	4.7 (1.1)	3.2 (0.6)	3.1 (1.0)	3.7 (0.2)	3.3 (0.3)	2.7 (0.0)	2.3 (0.1)	3.4 (1.0)	3.7 (0.6)
근원물가	1.8	4.1	4.9 (1.3)	4.3 (0.9)	3.9 (0.4)	4.6 (0.4)	4.3 (0.4)	4.1 (0.2)	3.9 (-0.1)	3.9 (0.2)	3.8 (0.3)
생산자물가	6.4	8.4	4.4 (0.1)	0.6 (-0.3)	0.7* (0.7*)	1.6 (-0.1)	0.5 (-0.4)	-0.3 (-0.2)	-0.3 (0.3)	1.0 (0.9)	1.3* (0.4*)
근원물가	6.0	6.4	2.6 (0.3)	0.3 (0.1)	0.3* (0.1*)	1.0 (0.2)	0.1 (-0.3)	-0.4 (-0.3)	-0.4 (0.0)	0.5 (0.5)	0.7* (0.2*)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9월 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둔화

-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현저히 확대되면서 전월비 큰 폭으로 증가
(2023년 8월 +8.2조원 → 9월 +11.3조원, 대기업 +4.9조원, 중소기업 +6.4조원)
 - 대기업 대출이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
 - 중소기업 대출도 기업들의 명절자금 수요와 월말 휴일에 따른 대출 상환 지연 등으로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 회사채는 은행대출 등 대체 조달수단 사용으로 순상환 기조가 지속
(2023년 8월 -1.1조원 → 9월 -0.8조원)
- CP·단기사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순발행 기조로 전환
(2023년 8월 -1.8조원 → 9월 +2.0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과 달리 상당폭 증가
(2023년 8월 +0.5조원 → 9월 +2.9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9월말 잔액
	1~9월	9월	1~9월	9월	1~9월	7월	8월	9월	
■은행 원화대출	72.6	7.7	89.9	9.4	67.9	8.7	8.2	11.3	1,238.2
(대 기업)	4.0	0.2	27.9	4.6	28.2	3.8	2.9	4.9	244.0
(중소기업)	68.7	7.4	62.0	4.7	39.8	4.9	5.2	6.4	994.2
<개인사업자>	30.6	3.5	20.1	1.8	7.0	1.5	1.2	0.8	449.7
■회사채 순발행	16.9	2.0	-2.1	-0.6	2.0	-1.1	-1.1	-0.8	..
■CP 순발행	7.5	-1.3	15.6	-0.4	3.2	0.6	-1.8	2.0	59.7
■주식발행	24.9	1.8	20.2	0.3	6.5	0.6	0.5	2.9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 9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타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2023년 8월 +6.9조원 → 9월 +4.9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영업일 감소와 금융권 대출 취급조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8월 +7.0조원 → 9월 +6.1조원)
- 기타대출도 명절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영향으로 감소폭 확대
(2023년 8월 -0.1조원 → 9월 -1.3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9월말 잔액	
	1~9월	9월	1~9월	9월	1~9월	7월	8월		9월
은행 가계대출	63.9	6.4	-1.2	-1.3	21.8	5.9	6.9	4.9	1,079.8
▪주택담보대출	47.9	5.6	14.7	0.9	35.0	5.9	7.0	6.1	833.9
▪기타대출	15.9	0.8	-16.0	-2.1	-13.1	-0.05	-0.1	-1.3	244.7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0월 중순(10월 13일 ~ 26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10월 초 한때 美 국채금리 상승세 등으로 4%를 넘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단기 급등 경계감과 증동의 정정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한 이후, 美 국채금리의 반등세로 동반 상승하는 양상
(10월 13일 3.957% → 10월 26일 4.104%, +0.15%p)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10월 초에 1,350원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美 국채금리 하락과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반락세를 보인 이후, 증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美 국채금리 상승 재개 등으로 재차 상승
(10월 13일 1,350.0원 → 10월 26일 1,360.0원, +10.0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9월	10.26일
	4/4	1/4	2/4	3/4	4/4	1/4	2/4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3.27	3.66	3.88	4.10
회사채(3년, AA-)	2.42	3.34	4.36	5.28	5.23	4.07	4.47	4.64	4.91
CD(91일)	1.29	1.51	2.04	3.24	3.98	3.59	3.75	3.83	3.82
CP(91일)	1.56	1.66	2.34	3.30	5.28	4.01	4.02	4.08	4.33
원/달러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336.5	1,360.0
원/100엔	1,030.2	992.7	946.5	993.3	953.2	981.4	907.0	901.3	897.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8월중 전년동월비 -0.6%, 전월비 +5.6%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16.8%), 반도체(8.3%), 자동차(7.8%) 등에서 증가한 반면에, 전자부품(-22.3%), 기계장비(-12.7%), 섬유제품(-5.5%), 1차금속(-2.0%), 화학제품(-1.7%)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0.6%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2%)와 중공업(0.5%)에서 각각 2022년 7월과 8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고, 경공업(-5.9%)에서도 감소폭이 축소

- 전월비 기준으로는 석유정제(-6.0%)와 전자부품(-3.8%) 등을 제외하고, 반도체(13.4%)와 기계장비(9.7%), 자동차(5.7%), 섬유제품(5.1%), 기타운송장비(4.8), 화학제품(1.3%)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5.6%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0.0)는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1.7%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보합(0.0%)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4.6%로 전월에 이어 0.3%p 추가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8월중 재고 증가폭(5.2% → 10.5%,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확대된 반면, 출하는 감소폭이 축소(-5.9% → -2.8%)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4%로 전월과 달리 3.4%p 상승(3개월 만에 상승)

□ 서비스업생산 : 8월중 전년동월비 +1.7%, 전월비 +0.3%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3.5%)와 숙박·음식점(-4.6%), 정보통신(-1.2%) 등 업종에서 감소하고, 운수창고(8.1%), 전문·과학·기술서비스(2.1%),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2.6%)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7% 증가

- 전월비로는 운수창고(1.0%), 숙박·음식점(3.0%), 도소매(0.1%) 등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0.6%),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1%) 등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3개월 연속 소폭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2.1%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0.3%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8.2	109.7	107.1	99.5	104.6	107.5	103.9	105.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6.4	-9.7	-7.6	-6.0	-8.1	-0.5	5.5
제조업 (원지수)	9,569.5	108.4	109.9	107.1	98.8	105.2	108.2	104.0	106.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6.7	-10.0	-7.8	-6.2	-8.3	-0.6	5.6
섬 유	113.4	2.0	-3.5	-10.1	-7.8	-9.1	-7.2	-10.0	-5.5	5.1
화 학	854.2	8.6	-9.9	-20.1	-20.4	-16.1	-10.8	-7.3	-1.7	1.3
철 강	496.6	5.2	-8.5	-23.3	-6.5	-2.6	-3.2	-5.6	-0.8	-0.5
반도체	2,023.8	26.8	7.6	-19.8	-33.8	-18.6	-15.8	-15.0	8.3	13.4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10.8	0.7	-14.7	-12.3	-42.1	-8.8	20.6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1	17.6	-12.6	-16.8	-11.5	1.0	28.7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5.9	-4.3	-13.9	-8.4	-15.9	-14.2	1.5
기계, 장비	737.3	12.1	1.1	5.4	0.7	-6.5	-7.8	-14.8	-12.7	9.7
자동차	987.5	6.3	9.1	17.5	21.6	15.4	10.8	6.2	7.8	5.7
조 선	66.0	-7.2	20.7	23.4	19.6	4.6	7.7	6.2	12.4	9.9
- 중 공 업	-	9.9	1.5	-7.3	-10.7	-7.7	-6.2	-8.2	0.5	6.3
- 경 공 업	-	1.3	0.4	-4.0	-5.6	-8.3	-6.1	-8.2	-5.9	1.7
- 제조업ICT	-	19.3	2.2	-19.7	-30.5	-19.1	-15.7	-16.5	1.2	11.1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5.0	112.0	117.9	111.8	115.2	117.6	114.0	114.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5.8	6.4	2.3	3.0	1.7	1.7	0.3
도소매	193.9	4.3	2.7	1.1	2.8	-1.1	0.9	-1.9	-3.5	0.1
운수및창고	78.4	4.2	17.7	17.7	17.3	9.5	8.0	7.3	8.1	1.0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9.8	16.3	-2.7	-4.6	-7.3	-4.6	3.0
정보통신	88.9	12.2	1.7	-1.0	-1.7	-3.8	-3.4	-0.6	-1.2	-1.1
금융및보험	167.4	8.0	8.4	12.5	10.7	7.1	7.1	6.9	5.7	0.3
부동산	38.7	2.3	8.0	6.0	4.1	3.0	3.4	2.8	2.1	-0.3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0.3	1.8	2.6	4.3	3.7	2.1	-0.6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4.2	5.6	3.5	2.6	3.2	2.6	-0.1
교 육	73.5	1.5	1.2	0.3	1.1	0.2	1.4	1.4	0.4	-0.6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6.3	5.7	3.5	3.5	3.9	5.7	0.9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26.6	20.8	7.0	9.1	-9.0	-0.4	6.2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5.9	13.8	5.4	7.5	4.4	6.7	3.4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4.8	0.6	-1.6	1.6	-2.8	1.0	4.6
- ICT서비스업	-	6.2	5.5	2.4	2.2	0.8	2.0	2.0	2.1	0.3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용

□ 취업자 수 : 9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지난 9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소폭 감소에 그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0.9% → 1.1%)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감소세(-1.6%)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크게 둔화(-1.1% → -0.2%)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2개월 연속 확대(1.6% → 1.7%)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0.0% → 1.7%)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세는 전월 수준을 유지(0.9% → 0.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4.4% → 5.2%), 정보통신업(4.5% → 4.7%)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에,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4.9% → 4.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2.2% → 1.6%),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6% → 1.2%)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2.0%)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6%로서 전월과 달리 재차 상승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산업	27,273	28,089	27,767	28,693	28,687	28,835	28,812	28,686	28,678	28,698
전년동기비	1.4	3.0	1.5	1.2	0.9	1.2	1.2	0.7	0.9	1.1
농림·어업	0.9	4.6	-1.6	-0.3	-1.3	-0.9	-0.8	-2.5	-1.1	-0.2
제조업	-0.2	3.1	-0.8	-1.1	-1.3	-0.9	-0.2	-0.8	-1.5	-1.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1.8	1.5	1.8	1.6	1.3	1.6	1.7
건설업	3.7	1.6	-1.0	-2.4	-0.1	-3.0	-2.8	-2.0	0.0	1.7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2.2	1.8	1.0	1.8	1.6	1.3	0.9	0.9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4	1.3	1.2	1.5	1.1	0.5	1.0	2.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2.9	2.8	2.2	2.9	2.6	2.2	2.4	2.0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7	2.6	2.6	2.5	2.6	2.8	2.4	2.6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9월 수출 4.4% 감소, 수입 16.5% 감소,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

○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4% 감소한 547억 달러, 수입도 16.5% 감소한 510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반도체·석유제품 등에서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대 실적치를 기록한 데다, 자동차·선박·일반기계·가전·디스플레이·철강 등 6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미국·EU·중남미 등지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비 감소율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최저치

- 수입은 전년동기비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36.3%)하고, 반도체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9.1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5.8%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0.5%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16.2% 감소한 약 75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13 (-12.7)	1,558 (-12.0)	1,572 (-9.7)	521 (-15.4)	542 (-6.0)	505 (-16.1)	520 (-8.1)	547 (-4.4)
수입	6,151 (31.5)	7,314 (18.9)	1,740 (-2.2)	1,593 (-13.2)	1,506 (-21.7)	543 (-14.0)	530 (-11.8)	487 (-25.4)	510 (-22.8)	510 (-16.5)
무역수지	293	-478	-227	-35	65	-22	12	18	10	3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자동차·선박·가전 등 수출 증가, 13대 품목중 6개 품목 수출 동반 증가

○ 반도체 : 수출단가 하락세로 전년동기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에 따른 수급 개선과 IT·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및 AI 서버용 고부가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올해 월간 기준 최대 수출액을 기록

- **자동차** : 북미·EU 등 주요 시장에서의 소비심리 위축에도 국산 친환경차 및 SUV 차량 수출과 판매 증가, 아세안·인도 등 현지 특화 모델 출시를 통한 전략시장 공략 등에 힘입어 수출이 15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북미·EU 내 현지공장 생산 정상화 및 전기차 지원 정책에 따른 관련 부품 수요가 증가세이나, 월말 추석 연휴에 따른 국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 전환
- **선박류** : 지난 2021년의 선가 상승분이 반영된 수주물량 생산 및 인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LCD 일부 품목들의 가격 반등과 출하량 증가, IT제품 및 자동차 분야 OLED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고가형 모델 비중 확대와 고부가가치 부품 탑재 등에 따른 평균 단가의 상승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둔화 영향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8개월 연속)
- **철강** : 주요 시장인 일본 내 설비 축소 영향 우려에도 중국 철강업체들의 감소에 따른 한국산 철강 수요 증가와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인한 철강 수요 등에 힘입어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섬유** :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물량의 점진적 증가에도 섬유원료·직물 등 대다수 품목에서 전년동기비 동반 감소함에 따라 수출이 16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제품** : 업계 정기보수 종료 이후 가동 재개로 가동률이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도의 고유가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
- **석유화학** : 업계 가동률 상승에도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16개월 연속 감소세
- **일반기계**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따른 북미·중동 지역으로의 산업용 기계 수출 증가와 유럽 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현지 생산·설비 교체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가전 수요가 호조세인데 다, 한국산 프리미엄 가전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PC·태플릿 등 전자제품 수요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IT 기업들의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축소가 장기화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자동차	24.2	16.4	43.9	48.9	17.2	49.2	58.3	15.0	28.8	9.5
자동차부품	22.2	2.4	-3.6	1.0	0.4	-0.8	5.5	-0.5	5.9	-3.5
선박류	16.4	-20.9	2.0	21.3	-3.7	-47.8	98.9	-30.9	35.1	15.4
일반기계	4.6	2.0	-2.0	5.6	6.6	1.4	7.9	2.8	7.6	9.8
철 강	36.9	5.7	-15.8	-5.7	-5.7	-8.9	3.1	-10.4	-11.4	6.9
석유화학	54.8	-1.4	-22.3	-24.2	-14.2	-26.6	-22.2	-23.8	-11.7	-6.1
석유제품	57.7	64.9	-0.5	-34.8	-27.7	-34.9	-40.0	-39.3	-33.0	-6.9
섬 유	14.0	-4.0	-15.2	-11.2	-11.7	-15.0	-2.8	-15.4	-10.9	-8.5
가 전	24.0	-7.4	-8.5	-7.5	7.5	-13.7	3.3	2.4	12.2	8.5
무선통신기기	45.9	-10.4	-13.4	-20.8	-8.2	-12.1	-12.3	-15.4	-8.6	-3.1
컴퓨터	24.7	-4.7	-61.9	-61.6	-48.1	-57.5	-53.5	-33.4	-54.6	-53.9
반도체	29.0	1.0	-40.0	-34.8	-22.6	-36.2	-28.0	-33.6	-20.6	-13.6
디스플레이	18.9	-1.1	-39.5	-16.5	1.2	-7.4	-11.1	-4.6	4.1	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의 국내경제 영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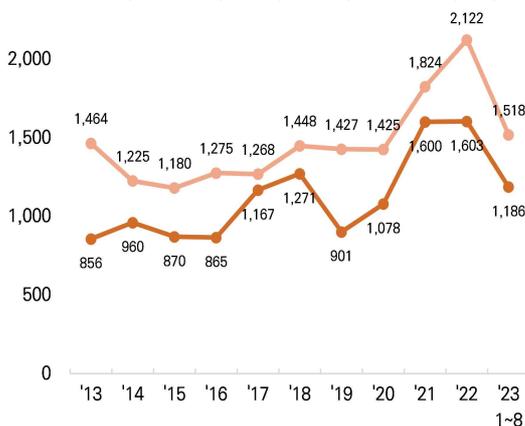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3년 10월)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나, 브롬과 항공기용 무선방향 탐지기 등 품목들의 對 이스라엘 수입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내·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에서,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력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직후 국제 유가는 4%대 소폭 상승한 이후,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유가 및 생산비용 상승 리스크가 존재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네온·크립톤 등 공급망 교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 경제에 적지 않게 영향

□ 對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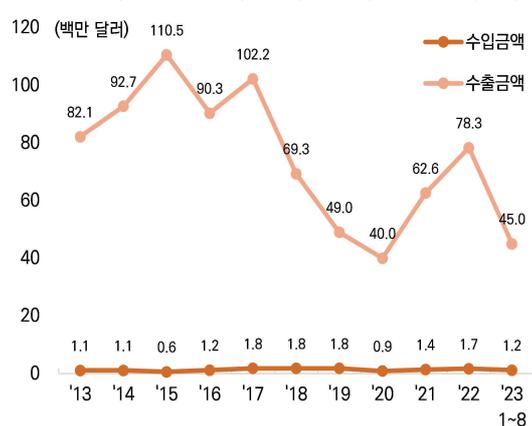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對 이스라엘 수출은 2022년 21억 달러, 수입은 16억 달러 규모
 - 지난 2021년에 對 이스라엘 수입이 급증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에너지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22년 수입의존도는 하락
 - 주로 자동차류를 수출하고,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정밀·광학기기 등을 수입
- 한국의 對 팔레스타인 수출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로 매우 미미하고, 수입 또한 연간 100만 달러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

< 한국의 對 이스라엘 수출입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 팔레스타인 수출입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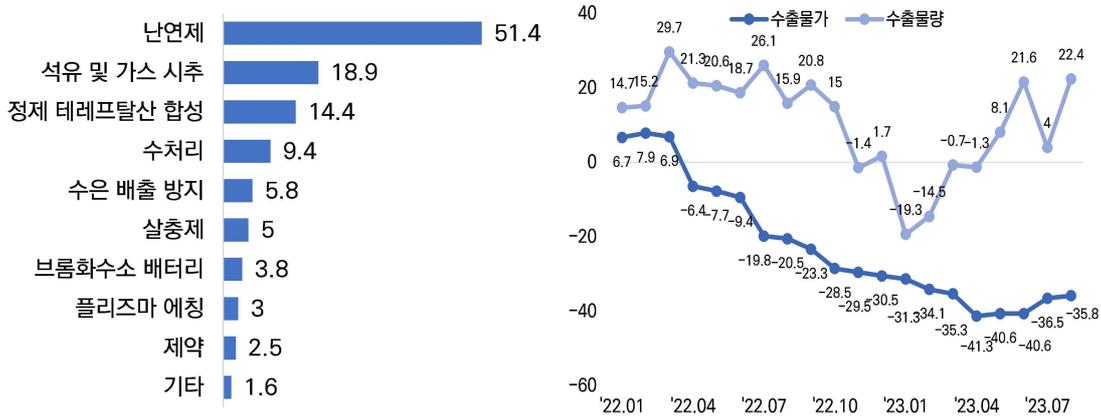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공급망 핵심품목

- 난연제, 석유 시추 등에 활용되는 브롬(Br)은 올해 1~8월 수입금액이 300만 달러를 상회하고, 특히 이스라엘 수입의존도가 99.6%로 압도적인 수준
 - 브롬은 미국, 요르단, 중국, 일본 등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국가들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
- 對 팔레스타인 수입의존도는 1%를 하회하고, 수출 또한 의존도가 매우 낮음.

〈 우리나라의 브롬 용도별 시장 규모 〉 〈 반도체 수출물가 및 물량 증가율 〉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20), 2019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국제 유가 및 반도체 산업에의 영향

-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산유국이 아니나, 분쟁의 장기화로 중동 산유국들의 전쟁 개입, 원유 생산 시설 및 수송로 침해 등으로 인해 급등할 가능성 존재
 - 유가 상승은 국내기업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 압력 가중 우려
 - 국제 유가 10% 상승은 수출금액 약 0.2% 증가, 수입금액 약 0.9%를 증가시켜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자율주행, 무인기 드론 등 첨단산업이 발달한 이스라엘의 기업들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 반도체 수요 또한 동반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
 - 수출 부진이 지속되어 온 반도체 산업의 업황 회복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

□ 결론 및 시사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브롬과 항공기용 무선방향 탐지기 등 일부 품목들의 對 이스라엘 수입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 이스라엘 내 인텔 CPU 공장을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들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등으로 업황 회복 시점이 지연 우려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0.30일)	(10.31일)	(11.1일)	(11.2일)	(11.3일)
 BOJ 통화정책회의  10월 경제제감자수	 9월 산업생산(잠)  9월 소매판매(잠)  9월 실업률  10월 소비자물가(예)  23.3분기 실질GDP(예비치)  10월 소비자신용지수  연준 FOMC(~11.1일)  9월 산업활동동향	 10월 ISM 제조업지수  10월 수출입통계	 10월 소비자물가	 9월 실업률  10월 ISM 서비스업지수  10월 고용보고서
(11.6일)	(11.7일)	(11.8일)	(11.9일)	(11.10일)
	 10월 수출입통계  9월 개인소비	 9월 경기선행지수(잠정치)  9월 산업생산	 10월 소비자물가	
(11.13일)	(11.14일)	(11.15일)	(11.16일)	(11.17일)
	 23.3분기 실질GDP(수정치)  10월 소비자물가	 10월 산업생산  10월 소매판매  10월 고정투자  23.3분기 실질GDP(잠정치)  9월 산업생산(수)  9월 소매판매(수)  9월 산업생산  9월 수출입통계  10월 소매판매  10월 생산자물가  10월 고용동향	 10월 무역수지(잠)  9월 기계수주  10월 산업생산	 10월 소비자물가(수)